

알코올이란 무엇인가?

(알코올과 주정 의존증)

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음주 문화(飲酒文化), 그 음주 문화의 주역(主役)인 알코올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?

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(軌)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. 그러나 어떤 이의 주장을 볼 것 같으면, 일본 원숭이가 과일을 따다 오목한 바위에 모아서 발효시켜 마시는 엉뚱한(?) 행동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술이 곧 인간만의 점유물은 아니라고 한다. 그런가 하면 우직한 짐꾼 당나귀도 긴 노정(路程)에 막걸리를 한 양푼 씩 가득 마시게 해주지 않으면 은근히 태업(怠業)을 했다 하니, 술맛에 길들이면 인간이고 짐승이고 간에 게 올려지고 요령이 늘어간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.

우리가 마시는 술은 그 맛과 향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는다. 크게 보아 막걸리, 맥주, 포도주, 홍주 등의 발효주(醱酵酒)와 소주, 위스키, 브랜디, 고량주, 진, 럼, 보드카 등의 증류주(蒸溜酒)로 나눌 수 있으며, 이것은 또 그 원료에 따라 곡주(穀酒)와 과일주(果實酒)로 나누어진다.

위스키와 속칭 ‘코냑’이라 불리는 브랜디는 대표적인 양주이다. 이들은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 속에서 숙성되며 위스키는 12년, 15년 또는 17년 등 숙성 기간을 표시하고, 코냑은 V.S.O.P 또는 X.O 등의 기호로 숙성 기간에 따른 분류를 한다.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안동소주, 문배주 등 민속주의 부활이 활발해졌고 동시에 그 아류(亞流)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, 서민의 술이라 불리는 소주도 고급화, 다양화되어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.

그러나 아무리 맛과 향이 뛰어난 술이라고 할지라도 술 마신 효과를 내는 물질은 오직 ‘에탄올’이다. 또 어떤 술은 마시고 나서 뒤끝이 좋은데 어떤 술은 뒤끝이 좋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그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제조 공정을 거치며, 메탄올, 부탄올, 알데히드, 페놀, 탄닌 등 불순물이 얼마만큼 혼입(混入)되는가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. 오히려 그보다는 얼마나 독한 술을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마셨느냐, 얼마나 기름진 안주와 함께 마셨느냐, 또는 마시는 사람의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좋으나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탄소, 수소 그리고 산소로 구성된 유기 분자 알코올($\text{CH}_3 - \text{CH}_2 - \text{OH}$)은 체내에 흡수된 후 90%정도가 간에서 분해된다. 우선 일차적으로 ADH라는 간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는데, 이것은 다시 '알데히드 디하이드로게나제'라는 효소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바뀐 후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어 우리 몸을 빠져나간다. 이 가운데 '아세트알데히드'가 바로 숙취를 일으키는 주범에 해당된다.

과거에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'알콜 빙' 또는 '알콜 스톱'과 같은 이른바 '술 끊는 약'은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막아서 오래오래 숙취를 남게 하고 괴로움을 주어 '술잔만 보아도'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는 조건반사를 만드는 것이다.

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많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을 흔히 한다. 또 자주 과음하는 사람은 술이 깬 후 늘 후회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. 그러나 또다시 술자리에 가서는 자신의 약한 의지에 한 번 더 실망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술꾼들의 애환(哀歡)이다.

술은 과음하게 되면 뇌, 위장, 간장, 심장, 신경계 및 생식 계통에 많은 악영향을 주어 신체적으로 허약하게 하고, 정신적으로는 급성 중독, 환각증, 편집증(의처증), 우울증, 더 나아가서는 건망 증후군과 치매를 일으켜 개인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그늘진 곳에서 눈물짓게 한다.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 사이 눈치만 보는 사람, 요령만 피우는 사람, 술 한 잔을 위해서 하루를 일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남들의 동정을 한 몸에 사다가도, 어느 한순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희생자가 되어 장외로 멀리 날아가 버린다.

술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가족과 사회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.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낭만주의자(浪漫主義者), 취객(醉客)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.